

# 저항의 미학, 도발의 연출 <햄릿머신> 제1회 가나자와 국제연극제

글 김형기(연극평론가, 순천향대 교수)



지난 8월 하순, 일본 중서부의 아름다운 고도 가나자와에서 제1회 가나자와 국제연극제(8.26~9.2)가 열렸다. 옛 에도시대 무사들의 문화유적과 전통 공예로 유명한 인구 40만의 도시 가나자와는 과거의 역사가 주는 화려한 이미지에 더하여 관광과 문화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가나자와 지역의 연극인들과 함께 가나자와 연극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상업성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행위로서 예술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가나자와시는 가나자와 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종전의 방직공장 건물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개조하였다. 세 개의 공연장과 한 개의 전시실, 그리고 각종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광대한 야외공원 등이 갖추어진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예술인들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창작의 산실이 되고 있는가 하면, 일반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적인 규모를 앞다투어 자랑하고 선전하는 국내의 연극제들과는 달리, <가나자와 국제연극제>는 '자유로운 창작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내놓는다', 작지만 내실 있는 연극제를 지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제1회 가나자와 국제연극제의 테마로 "하이너 필러/세계"를 채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독일이 아닌 일본에서, 그것도 전적으로 하이너 필러의 <햄릿기계> 작품만을 무대에 올리는 국제연극제를 개최한다는 점이 이례적이긴 하다. 하지만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우리 시대와 필러 텍스트의 관련성 외에도 그의 희곡이 지닌 연극적 호소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그 취지를 쉬이 납득할 수 있다. 이 연극제에 한국에서는 극단 창과의 <햄릿머신> 작품이 초청되었고,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hmp, 동경의 진잔트 로푸스 보에세이와 후에다 우이치로 연극사무소, 그리고 사이타마의 TPCB-연극프로젝트 CATCH BY 등 네 팀이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그 밖에 가나자와시의 원로 배우팀과 대학생들이 대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이 기간 동안 병행되었다. 필자는 이 연극제의 부대행사로 열린 심포지움(8월29일)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해야 했던 관계로 연극제 기간 중에 직접 관람한 hmp와 극단 창과의 공연을 중심으로 이 글을 전개하겠다.

이번 연극제가 진행되는 동안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양에서 하이너 필러의 작품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주제에서 "하이너 필러/세계"가 나란히 병치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필러의 극작은 어느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많은 연출가들이 필러 텍스트에서 도발을 느끼

고 크고 작은 연출적 상상력을 자극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독에서 예술활동을 시작한 필러(1929~1995)는 나치즘을 청산할 유일한 대안이라 믿었던 사회주의가 그 혁명적 이상을 "배반"하기 시작하자 70년대 중반 이후 유물론 증법에 기초한 역사적 인과원리와 진보이념을 포기한다. 그의 드라마투르기는 이러한 해체적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철저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완결된 극작을 모형 대신에 텍스트의 파편화를 받아들인다. 이로써 그의 연극에서는 전지적(全知的) 시점에서의 조종이 제거되고 수용미학적 다중시점이 가능하게 된다. 텍스트의 통일된 관점을 조장하는 '작가'의 존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독자와 관객이 수용과 의미구성의 주체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필러의 연극에서는 관찰 주체와 대상 세계 간의 분리를 공고히 하는 소위 액자무대(프로시니엄 무대)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이번 연극제에서 선보인 공연작품들은 이러한



필러 텍스트에 내재하는 엄청난 무대창조의 가능성을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듯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먼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안의 실험극장인 '퍼포먼스 스퀘어'에서 8월27, 28일에 공연된 오사카 hmp의 <햄릿머신>(연출 笠井友二)은 비판적인 역사인식을 몸으로 증거해낸 전위연극의 전형적인 한 예이다. 작품의 시작과 동시에 전라(全裸)에 가까운 한 남자

배우가 마치 벌을 받기라도 하는 듯 양팔을 위로 올린 채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관객의 바로 면전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동작을 끝까지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그의 온몸에 뼈곡



이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글귀는 인류가 백지와도 같은 상태의 자연에 새겨넣은 역사의 흔적에 다름 아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역사의 적나라한 모습이 배우의 몸을 통해 육화되어 관객의 오관으로 전달된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배우의 몸을 타고 일새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고통스러운 얼굴표정, 그리고 점점 더 힘겹고 가쁘게 돌아쉬는 숨소리로 인하여 관객들은 긴장과 불안, 초조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이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공연에서와 마찬가지로 팔짱을 낀 채 무대 사방에 둘러앉아 관람을 하던 관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육죄어 오는 질식할 듯한 상황에서 도피할 길이 없다. 이로써 연출자는 착취와 억압의 역사를 방관해 온 무책임한 동시대의 관객들에게 바로 그들 자신이 오늘과 같은 정체와 부패의 역사를 만들어온 장본인이자 공범자임을 각인시키면서 그 고통을 공유하게끔 한다. 이때 두렵게 각질화된 의식의 표층을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성적인 언어 대신에 감각적 코드가 동원되는데,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호소하기 위함이다. 관객은 여기서 이런 역사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연출자는 바로 오늘의 이런 역사현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잔혹할 정도로까지 마조히즘적이고 동시에 가학적인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문죄하고 있는 것이다. 고색 찬연한 공상 내부를 공연장으로 꾸민 드라마 공방에서 공연된 극단 창파의 <햄릿 머신>(연출 채승훈)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미학적 접근방법을 보여준다. 2000년 봄의 서울 공연(씨어터 재로)작품에서 대사에 의존하는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고 제의적 구조와 신체언어에 의한 표현을 더욱 확대한 연출자는 배설, 퇴폐, 부패, 부정함 교집의 역사에 대한 싹김

을 시행한다. 촛불과 향 내음으로 가득 차 있는 무대는 배반과 죽음의 역사를 정화하는 공간이 되어 있다. 연출자는 기존의 시간과 언어를 지양하고 해체하는 무대상의 '테러'를 감행한다. 배우들의 말은 더 이상 의미론적 기호로서 기능하지 않고 분절된 음성기호로서 작용할 따름이다. 배우들의 경련과 마비의 몸짓 역시 고정된 의미(기호)의 재현이

아니라 자아분열과 절망적 세계경험의 직설적, 감각적 표현이다. 사자(死者)들의 무도가 펼쳐지는 핏빛 조명의 무대, 소멸과 죽음의 기운으로 충만한 음산한 공기, 인지작용의 자동화를 깨기 위한 고속도 촬영기법에서와 같은 시간의 확장 등을 통해 연출자는 광기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말없는 반란과 폭동을 감행한다. 이런 싹김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연출자의 현실인식은 하이너 뮐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비판적이다. 이는 싹김의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순환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죽음'과 '싹김'의 무의미한 반복으로써 역사를 승명처럼 등에 지고 사는 오늘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배반, 부정함 교집에서 기인하는 부패와 파멸의 역사를 더 이상 망각하거나 방기하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이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도덕적 힘의 원천인 까닭이다. 연출가 채승훈의 '반연극'은 인간의 자기방어 본능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망각의 메커니즘'에 맞서 바로 '기억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함이다. 제1회 가나자와 국제연극제에서 관극한 위의 두 편의 공연은 다 같이 관객을 쇼크와 경악을 통한 배움과 인식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도발적인 연출을 특징으로 갖는다. 여러 세기를 지배해 온 모더니즘의 정신과 그 예술영상화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그 효력을 전복시키려 한 점에서 hmp와 창파의 <햄릿머신> 공연은 탈근대주의적 "저항의 미학(Asthetik des Widerstands)"의 의미있는 성과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극단

### 극단 동경

#### ♥미통

작·인술·홍단주

출연·최석규, 이승훈, 황인희, 윤상희, 김형원, 김형진, 최희순  
일시·(3.25 사연회), 10.5~10.13 평일 7시  
반, 토4(7시) 7시, 일3(8시), 월휴  
공연장·아리랑아트홀 ☎ 942-0036  
장외공연작품 (미통)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공중무용 장대(장대에 재주를 도전하는 것)를 연극적 양식으로 현대화한 실험극이다. 무용수가 된 기성과 판다가 된 무용의 춤과 사랑이야기, 공중무용공간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 좋은 인상을 포함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무용수들이 이이다. ('미통'은 '춤의 극에서 짓는 미소'라는 뜻)



### 지구연극연구소(G.T.I)

#### 바나 아저씨

원작·인문, 채승/역·김태훈

연출·차대호

출연·유상진, 김태훈, 이미정, 송영규, 이길희, 홍은희, 홍정재  
일시·10.9~10.15 평일 7시반, 토요일 4시반  
시반  
공연장·연경동 ☎ 702-0810



지난 2001년 국립극단 발표극단의 개관 프로그램으로 올려진

인문체임 코메디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올려져 호평을 받았던 <바나 아저씨>가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다시 선보인다.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아틀리에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인텔리층들을 고통 겪는 배우들이 표현해 낸 <바나 아저씨>는 출연한 감독과 무용수로 대공과 함께 하는 체험을 재창립, 강조할 것이다.

### 극단 세실

#### ♥산싹김

작·이현화

연출·채승일

출연·배정자, 안선희, 김자경, 최정운, 안보람  
일시·9.20~10.13 평일 7시반, 토일 4시반  
시반, 일 3시, 월휴  
공연장·사물놀이 소극장 ☎ 334-5955, 5925



극단 세실의 명레퍼토리아지 작가 이현화가 연출가 채승일 씨의 대표작인 <산싹김>이 소극장 산울림 우수 창작극 초청공연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1997년 '서울 세계연극제 국제공시초창극'으로 공연했던 <산싹김>은 당시 공연을 본 외국인들의 초청공연 제의가 잇달아 화제가 됐으며 1998년 세계연극제 공시초창극으로 선정, 최연하를 비롯한 스위스 4개 도시 순회공연을 마친 바 있는 수작. 무형식의 형식의 작가가 불타워지는 이현화와 사회적 서정성과 실험적 탐이주의 연출가 채승일 씨의 작품의 향연을 살리기 위해 새롭게 작업해내는 2002년 <산싹김>을 어떻게 무대에 형상화할까?

### 극단 현빈

#### ♥생고기 정문

작·신목연

연출·손대원

출연·김일범, 박재진

일시·10.9~10.27 목~토 7시반, 금 8시 47시반, 일3(8시), 월 휴  
공연장·소극장 리움공간 ☎ 317-9256



일찍이 지하실에서 살아가는 남자. 그는 유일한 외과 의사인 아버지에 의해 양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 관정을 받고 30여 년간 불안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게다가 고기만 먹어야 하는 제한적 생존 조건이 덧붙여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성취 높이에 집착한다. 아들을 위해 간병인 겸 청소부를 사서 그가 사는 방에 넣어주는 아버지. 그러나 어느날 남자는 '제지'라는 별명의 여자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비속'이라는 여자를 통해 수치심도 느끼게 되는데... 이야기꾼으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작가 신목연의 신작 <생고기 정문>이 페르소나적인 움직임과 사랑과 아버지에 도망 등 다양한 연극적 장치와 만나 올려진다. 관객들은 낯선 동시에 익숙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현실의 정경 폭과 위기의 인간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